

오피니언

특별기고

이용우



이단이나 이적(異蹟), 이설(異說) 등 다른 이(異)가 들어가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르다'는 말은 '같다'의 반대말로 좋게 해석하자면 전현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차별화 되는 것을 일컫는다.

말하자면 특징 없는 유니폼 문화 같은 동류나 동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혼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이나 기준의 권위에 대항하는 가설이나 이론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왜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것인가.

너와 나는 같은 점도 많겠지만 실은 다른 것이다.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크기도 다르고 유전인자도, 성격도, 생김새도, 능력도, 사회성도 다른 것이다. 성별이 다른 남녀가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결합체 가운데 극히 해당한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아름답고도 숙명적이며, 지당한 인문학적 개념이 지역이나 종족, 종교, 국가 등 사회적, 지리적 단위로 옮겨갈 경우에는 단순히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경계와 긴장감, 심지어 적대

감으로까지 발전한다. 이 우주의 존재들은 원래 다른 것이라는 본질적 인식은 전혀 작용하지 않고 거꾸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단이라는 용어가 종교영역에 적용될 때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 의미가 적대적으로 바뀐다. 종교용어로 이단은

이단(異端)과 인문학적 사고

서로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에 어긋나거나 정통의 반대말로 급격한 수정을 거쳐 수용된다. 그만막 베타성이 강하며 배타적 용어로 둘러하는 것이다.

우주를 논하고 생의 궁극을 가르치는 지구상의 종교들이 상호배타적이라는 사실은 최고의 아이러니이다. 인문학의 극치인 종교가 지극히 사회학적인 베타성을 갖게 된 것이다. 어느 종교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진정한 종교는 없고 종파만 있다고 지적한다.

예술에서는 이단적인 것들이 속칭 정통을 전복하고 혁명에 성공하는 예는 다반사다. 즉 전위적이고 실험적 예술형식이

기존의 형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로 등극하는 것을 의미한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를 전복하였고, 낭만주의는 인상주의, 입체주의 등 추상형식에 의하여 차례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을 수반한 성공한 혁명이 되었으며, 서로 다양한 진화과정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진화는 악육강식이 아니라 대체로 격한 토론과 담론을 수반한 인문학적이고 인류학적인 토양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화가 앙리 마티스는 그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이단적 경향 때문에 전시대 예술가들의 냉대와 조롱,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그려한 것들을 닦고 거장이 되었다. 오죽하면 그의 그림을 '짐승 같다'는 말로 설명하고 야수파라는 이름을 끌여주었겠는가.

그렇지만 그렇게 불여진 야수파도 세월이 지나 미술사에 기록되면서 그럴 듯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도 후세대의 이단적이고 과격하며, 새로운 경향에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살롱전의 심사위원이 되었을 때 후대 화가의 출품된 작품을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비난하면서 심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과거 마티스가 그랬던 것처럼 후대의 또 다른 전위적 예술가들은 비판

을 딛고 우뚝 솟아 다시 유명 예술가가 되었다. 예술은 언제나 첨단에 있는 것을 멎으로 삼고 그 종사자인 예술가들은 그래서 사회적 안테나라고 불린다. 그런데 예술도 그 근간은 인문학인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용어는 원래 경제용어에서 유래하였다. 인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지적 확산을 통하여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철학이던 과학이던, 그리고 종교이던 이단적일 만큼 빠르게 변한 사회적 시스템 앞에서 새로운 생존의 법칙을 찾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인터넷에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지리학이 제일 먼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대에는 새로운 종교적 시스템이 틀림없이 도래할 것이며, 철학이나 과학 같은 영적, 육적 통합의 방법론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많다.

나는 부도덕하거나 청소년 유해적인 것을 제외한 어떠한 사회적 이단에도 너그러운 인문학이, 그리고 인내를 통한 자연 도태의 힘을 믿는 인문학적 전통에 오늘날 오염된 사회를 치유할 가능성을 믿고 있다.

그래야 하루에도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생을 의지하는 젊은 세대들과 나는 인내심으로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자들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 까지 스마트폰이 수업을 심각하게 즐기는 대로 이구동성으로 질규한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종교칼럼



현지

죽음이란 놀랍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고 즐거운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저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원인이었다.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 수행하여 안 죽는다는 도리를 깨닫아 성불한 것이다.

죽음은 죽임이 아니고 사라짐도 아니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죽음이란 놀랍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육신이 구족한 사람, 육신이 부족한 사람, 넉넉한 가정, 곤궁한 가정,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활동하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것들은 다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선호한 습들이 만들어낸 인과연의 과보이며 윤회인 것이다.

어찌 다시 태어남만 윤회라 하겠는가! 늘어가는 것도 윤회요, 낫과 밭도 사시사철 모든 것이 윤회다. 일체 만물이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연, 윤회의 고리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석가모니께서 발견하신 윤회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의 소용돌이며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서양의 철학자들은 만물은 유전한다고 말하였다.

잘 둘든 단풍이 떨어져 썩어지면 나무의 양분이 되고 잎새가 되어 다시 가을이 되면 온 산을 곱게 물들이고 떨어져 밟거름이 되어 일새로 자라게 되는 것이 생멸 변화의 법칙이요, 윤회인 것이다.

어느 날 정조 대왕이 융파대사를 불러 '내겐 세자가 없어 걱정이니 백일치성을 드려 늘남하게 해달라' 하였다. 융파대사는 금강산에서 공부하는 능산스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였다. 기도가 시작한지 70일이 지난 어느 날 융파대사는 선정에 들어 세간을 살펴보니 세자가 될 만한 인연을 가진자가 없었다. 그는 금강산에서 기도하는 능산스님에게 편지를 썼다. "나나 스님 중에 한 사람이나 죽어 세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가 타당할

것 같소"라고 전하였다. 이 편지를 본 농산스님은 "나는 대도에 뜻이 있지만 인과의 도리에 따라 그 뜻을 따르겠소."라고 답장을 끄고 '어찌 사십 년 세월동안 임금의 망건을 쓰고 지낸단 말인가!' 하며 입적하셨다.

기도하던 농산스님이 입적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융파대사를 불러 오늘은 기도회향한데 이것은 불상사가 아니겠는가? 하고 물었다. 융파대사는 농산스님과 오간 두 장의 편지를 보이고 '곧 득남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과연 열日后 왕자가 태어나 정조대왕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바로 순조임금이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초목, 동물을 막론하고 물질(몸)은 죽어 없어지더라도 엔 다시 물질(몸)에 돌아 수레바퀴처럼 끌고 돌아온다.

윤회가 갖는 참된 의미는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삼계(탑유세계, 색유세계, 정신세계)와 육도(지욕, 아귀, 죽생, 아수라, 인간, 천상)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 여하에 따라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영원히 윤회의 고통속에서 공생할 수 있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요 자연이며 성불인 것이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안규자

여유롭고 행복한 산촌의 아침

고 있다.

먼저 봉덕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인 '산촌의 아침'이다. 오전에는 청국장을 이용한 슬로푸드 체험을 한다. 점심 후에는 천년고찰 보림사 뒤로 펼쳐진 1만여 평의 거대한 다원(茶園)에서 채취한 녹차로 그 녹차이다.

오후에는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마부가 휴드는 체찍의 강도에 따라 천천히 때로는 조금 빨리 걷는 말진등에서 '슬로시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유기농 음식만을 고집하며 깊은 산 넷들이 흐르는 곳에 터를 잡아 살아오면서 천연자원에서 얻어진 그 땅

에서 재배된 음식만을 먹는다는 '효 체험마을'인 신덕마을이다. 소고기를 방불하게 하는 밀고기와 빛 좋은 님들 소나무에서 채취한 송화가루로 만든 송과(松果)에서는 문설주에 귀대고 엇듣고 있던 산지기 외판집 눈 먼 처녀의 숨결이 느껴진다.

'장수풍뎅이' 마을인 만월마을로 발길을 옮긴다. 원두마을 경운기의 봄을 살이 3km 거리를 달리다 보면 세상의 오염과는 거리가 멀고 소류지를 만난다. 8대의 편백나무 빅북에 가족단위로 나누어 태고 대나무로 뉘어지기 시작한다. 장수풍뎅이 생태관찰 및 풍뎅이 모형을 만들어 보고 가천에 흐르는 물로 물어 갓 짙은 민물고기로 뒤집을 만들어 먹으면 신선놀음이라도 하는 듯 도시의 쇠락함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오래 흥이 나는 곳, 장흥 '슬로시티'에서 겨울방학을 보낼 어린이들이 맞이하는 산촌의 아침은 분명 자연이 숨 쉬는 한가로움과 여유를 동시에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산길을 돌고 돌아 '표고의 향기'로 맞아주

는 신월마을로 간다. 아련한 추억속에 간직된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고구마가 익어 가고 풀밭에 숨겨진 달걀찾기도 할 수 있다.

이웃 장령면 우산마을에서는 '지렁이 길들이기'가 학창이다. 지렁이는 분변투 농법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마을이다. 10여년 전쯤 만 해도 만국기가 휘날렸던 운동장 한편에 지렁이가 어떻게 흙을 살려내는지를 보여주는 생태학습장이 있다. 지렁이는 어린이들에게 채소화분을 선물하고 토종닭에게는 기꺼이 먹이가 되어준다. 이 마을에선 당나귀 타기와 정성 호수에서 놀고 타기도 할 수 있는 마을이다.

매 주말 체험프로그램은 계속 될 것이다. 첫눈이 날면 산촌을 새하얗게 수놓을 즈음이면 얕은 눈에 물을 대고 설매를 달리게 할 것이다. 장작불을 모아 고구마를 굽고 연을 날릴 것이다.

오래 흥이 나는 곳, 장흥 '슬로시티'에서 겨울방학을 보낼 어린이들이 맞이하는 산촌의 아침은 분명 자연이 숨 쉬는 한가로움과 여유를 동시에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흥군 문화관광과장〉

마약 손대는 학원 원어민 강사 많아 걱정 태산

원어민 강사는 학원을 오가며 미국에서 히로뽕과 대마초를 고诌하고 들여와 직접 흡입하는 것은 물론 유흥과 족에 파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외국인 강사들의 마약밀수가 급증한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의 손길이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교사와 스스럼없이 지내다 마약을 권유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마약사범보다도 학원 쪽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마약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그런데 이 원어민 교사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마약이다. 다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는 아니길 바라고, 사고가 터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얼마 전 경찰에서 낸 자료를 보니 마약사

범으로 불잡힌 외국인 30%가량이 원어민 강사였다고 한다. 마약사범 셋 중 1명이 원어민 강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마약사범보다도 학원 쪽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마약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시설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 지역경제 활로 되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오는 2013년부터 연간 62만대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아차 최대 공장인 경기 화성공장 생산규모(연 62만대)와 맞먹는 것으로, 기아차는 최근에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연간 62만대를 생산하는 계획이다.

더욱이 이번 계획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외이전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7일 노사가 참여한 고용안정소위원회를 열어 한 50만대 생산체제를 62만대 생산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산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500억 원을 들여 스포티지R과 쏘울을 생산하는 2공장과 사원주차장 일부에 생산시설을 증축하는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 2013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티지R과 쏘울의 수요 폭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증산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우선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야 하는 등 과제도 있다. 지난해 50만대 생산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인원 확충 등을 둘러싸고 6개월 이상 갈등을 벌였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회사와 노조는 노사 합동 정신을 바탕으로 증산 계획을 갈등 없이 마무리해 첨예의 높은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가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룰 정도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때문이다.

베란다와 거실의 창호 등도 함께 공사를 해주겠다고 종용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협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 전남도 각 자치단체는 대상주택 사전조사, 완공 후 확인 등 관리·감독권을 업체로 모두 일임했다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남은 예산은 국고로 반환돼 다른 수급자의 주택 개보수에 쓰여야 하지만 감독당국의 관리 부실로 수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올해 광주는 200여 가구가 주택 개보수를 신청이나 60여 가구가 탈락한 게 이를 말해준다.

LH와 관계기관은 관리·감독권을 업체로부터 즉시 회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에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불법 공사가 밝혀지면 계약 위반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조치해야 하며, 선정업체 자격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류역사에 있어 돈의 가치는 등하고 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돼 왔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도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수 있다'며 무소불위 같은 돈의 힘을 인정했고, 돈이나 재물이 없으면 인심이 각박해진다는 뜻에서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을 만들었다.

돈이 없어 겪는 고통은 누구나 똑같은 모양이다. 시인 김수영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라는 시에서 궁핍의 두려움이 조개한 증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토로했다.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 ...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로 나왔다고 분개하고 ...'

을 한해 직장인의 삶을 대변하는 자성어로 '맹한 한